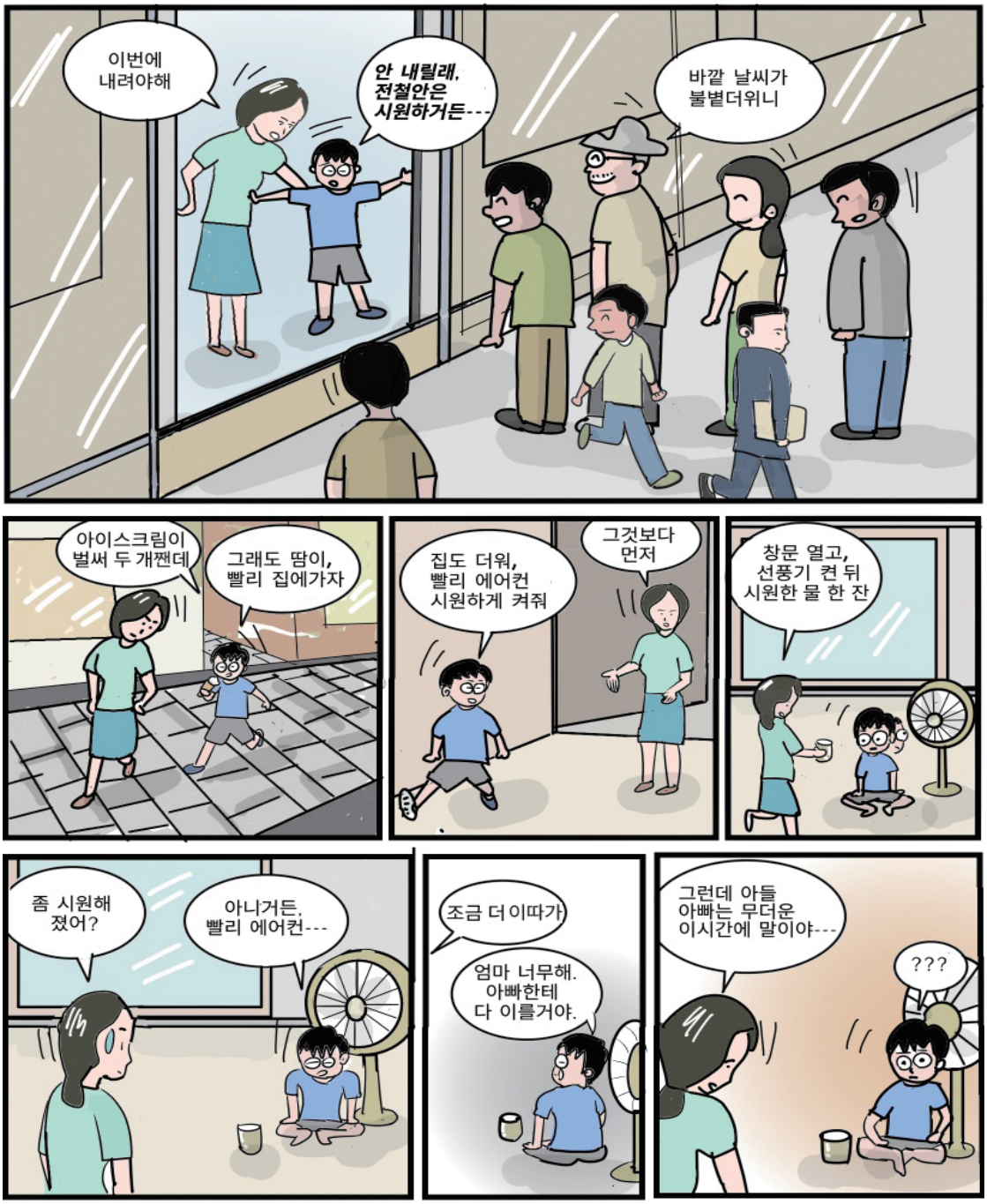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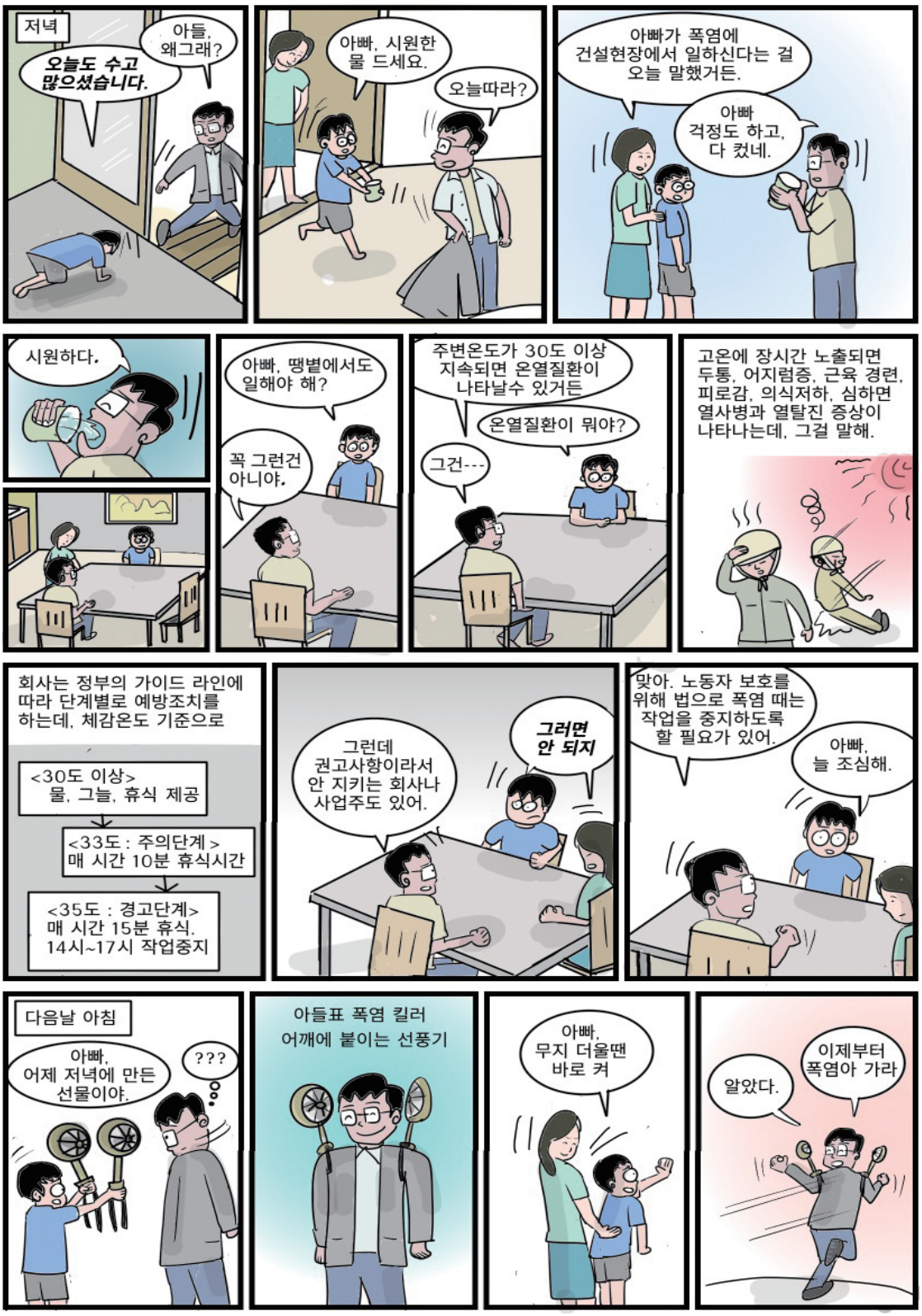
고온에 장시간 노출, 온열질환 발생 예방해야

그러나 정부의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라인은 권고사항에 그쳐 작동 안되는 현장도 많아 폭염 속에서도 작업진행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에 폭염을 명시해야




저녁
아들, 왜그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빠, 시원한 물 드세요.
오늘따라?
아빠가 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걸 오늘 말했거든.
아빠 걱정도 하고, 다 컸네.
시원하다.
아빠, 땡볕에서도 일해야 해?
꼭 그런건 아니야.
주변온도가 30도 이상 지속되면 온열질환이 나타날수 있거든
온열질환이 뭐야?
그건---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심하면 열사병과 열탈진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말해.
회사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예방조치를 하는데, 체감온도 기준으로
<30도 이상> 물, 그늘, 휴식 제공
<33도 : 주의단계 > 매 시간 10분 휴식시간
<35도 : 경고단계> 매 시간 15분 휴식. 14시~17시 작업중지
그런데 권고사항이라서 안 지키는 회사나 사업주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맞아.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폭염 때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아빠, 늘 조심해.
다음날 아침
아빠, 어제 저녁에 만든 선물이야.
???
아들표 폭염 킬러
어깨에 붙이는 선풍기
아빠, 무지 더울땐 바로 켜
알았다.
이제부터 폭염아 가라